

제41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
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26일(금)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

(09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07분)

○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7월 22일과 7월 24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검토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범계**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님이 두 분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초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유상범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범계**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 후보자가 배우자, 아빠 찬스로 인해서 자녀가 갭 투자를 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한 과정 그다음에 금남고속과 관련돼서 주식을 취득한 경위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숙연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과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는 파기환송의 결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숙연 후보자가 약 90억 원에 상당하는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공직자로 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늘 강조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모습을 본인이 전적으로 생활 과정에서 실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또 자산을 얻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본인이 보여 줬던 각종 적극적인 기부 행위의 모습은, 그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구두쇠라고 많이 비난받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재산을 사회에 많이 환원함으로써 구두쇠로 평가받던 부분이 오히려 더 칭송받는 모습도 종종 미담으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뀔 수가 있고 또 2심의 판결이 3심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3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고 판사가 판단함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에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우리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사법의 산물이다, 사법정책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2심에서 기존의 본 판단과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고 해서 그 판단이 비난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판단의,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하는 기간,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계 허영 간사님.

○허영 위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고위공직자로서 뭔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과 또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축소 제출하거나 그리고 여하튼 국민의 알권리를 스스로 방해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재산신고 제도 등등 여러 법적 그리고 제도적 한계 부분들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여실히 느꼈고 또 그 필요성들이 제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입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임명 제청과 국회의 동의와 그리고 임명, 이 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국민의 판단과 국민의 시각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충실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유상범 간사님께서 이숙연 후보자의 여러 가지 기부 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후보자가 보였던 답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대법관후보자의 확고하고 또 국민의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해 드리고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세 분 모두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고 또 솔직한 대법관후보자로써의 답변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될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국민이 판단할 때 필요한 각종 답변에 있어서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인사청문회가 향후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계 오늘 저희 대법관 세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송부를 할 거고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보류가 됐습니다. 향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류 상태로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근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희승 백혜련 유상범 조배숙
주진우 주철현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태현
전문위원 유세환